Switzerland Tourism.

가을 한복판을 지나는 기차 여행.

기차로 찾아가는 최고의 가을 포토 포인트

황금빛 계절의 손짓 따라
빙하 따라 펼쳐진 가을 숲
최고의 파노라마 기차로 달려 스위스 가을 품속에 담뿍
스위스 트래블 패스 있으면 대부분 공짜

잎새가 황금빛, 주홍빛, 붉은빛으로 물들면, 알프스 초원에서 여름을 보냈던 소 떼가 화려한 꽃으로 한껏 장식하고 각자의 목장으로 돌아간다. 여름내 소를 맡아 주었던 목동을 치하하고, 소들을 반기기 위해 마을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가을 특식이 한 상 가득하다. 바로 이게 스위스의 가을이다. 스위스에서도 가장 컬러풀한 계절, 가을을 즐길 수 있는 가장 기막힌 방법은 기차를 타고 오색 찬란한 풍경 속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스위스에서도 가을 정취로 소문난 구간을 소개한다.

1. 골든패스 파노라믹(GoldenPass Panoramic)
몽트뢰(Montreux)–츠바이짐멘(Zweisimmen)
이 파노라마 구간은 '황금빛(golden) 가을'에서 얻은 이름이다. 스위스를 찾은 첫 영국인 관광객들이 이 아름다운 가을의 색깔을 본국에 전하며 스위스에서 '황금 같은 시간(Golden Time)"을 가졌다고 소문을 냈다. 골든패스는 지금도 가을빛 찬란한 단풍에 그 공을 돌린다. 실제로 이 구간은 가을 정취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여정으로, 베르네제 오버란트(Bernese Oberland) 지역에 있는 츠바이짐멘에서 레만(Léman)호 지역에 있는 몽트뢰까지 프리미엄 파노라마 차량을 이용해 숲과 언덕을 굽이치며 여유로운 여정을 선사한다. 골든패스 파노라믹 예약 시에 식전주도 함께 예약하면 우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가을 최고의 포토 포인트: 루쥬몽(Rougemont)–로시니에르(Rossinière)–몽보봉(Montbovon)

예약: 좌석 예약을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단, VIP 석 이용은 반드시 예약을 하도록 한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골든패스 벨 에포크(GoldenPass Belle Époque)
몽트뢰(Montreux)–츠바이짐멘(Zweisimmen)
스타일리쉬하게 가을을 즐기고 싶다면, 골든패스 벨 에포크 차량을 타면 된다. 몽트뢰와 츠바이짐멘 사이를 연결한다. 골든패스 파노라믹 차량과 다른 차량을 이용하는데, 기차에 발을 올려놓는 동시에 시간 여행을 떠난 기분에 젖는다. 프리미엄 퀄리티의 목재를 사용해 아름답게 장식된 기차로, 세기말을 가리키는 벨 에포크 시대의 감성이 충만하다. 포근하고 아늑한 좌석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아름다운 가을 정취를 바라볼 수 있다. 여정 중에 입이 심심하다면, 작은 접시에 담아내는 지역 특산품도 주문할 수도 있다.

가을 최고의 포토 포인트: 루쥬몽(Rougemont)–로시니에르(Rossinière)–몽보봉(Montbovon)

예약: 좌석 예약을 권장하지만, 필수는 아니다. 단, VIP 석 이용은 반드시 예약을 하도록 한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3. 빙하특급(Glacier Express)
체르마트(Zermatt)–생모리츠(St. Moritz)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웅장한 마터호른(Matterhorn)이 내려다보는 마을, 체르마트부터 반짝이는 엥가딘(Engadin) 계곡의 산정 호수로 둘러싸인 마을, 생모리츠까지 빙하특급은 스위스 최고의 가을 정취를 관통한다. 세상에서 가장 느린 특급 열차로 떠나는 여행은 황금빛 낙엽송과 생기 넘치는 낙엽수 숲 사이로 이어진다. 기차는 여덟 시간 동안 91 개의 터널을 지나고, 291 개의 다리를 건넌다. 빙하특급의 파노라마 창문은 어느 것 하나 가로막지 않는 가을 풍경을 담뿍 선사한다. 3 코스로 제공되는 점심 식사도 근사하다.

가을 최고의 포토 포인트: 란다(Randa)–생 니클라우스(St. Niklaus) / 오버알프(Oberalp)–디젠티스(Disentis) / 실스 임 돔레쉬그(Sils im Domleschg)–필리수르(Filisur) / 베르귄(Bergün)–프레다(Preda)

예약: 좌석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Luzern-Interlaken Express)
루체른(Luzern)-인터라켄(Interlaken)
중앙 스위스에서 기차에 올라 편안한 좌석에 몸을 묻고, 거의 두 시간 동안 가을 숲의 기막힌 뷰를 한껏 마음에 담아볼 수 있다. 그리고 나면 융프라우 지역(Junfrau Region)에 도착한다. 이게 바로 루체른-인터라켄 익스프레스다. 이 구간에서는 프리미엄 파노라마 차량이 수정처럼 맑은 다섯 개의 산정 호수와 여러 개의 폭포 및 강을 지난다. 기스빌(Giswil)이 지나면 바로 기차가 톱니바퀴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고도를 높여 브뤼니크 고개(Brünig Pass)를 올랐다가 인터라켄을 향해 다시 내려온다.

가을 최고의 포토 포인트: 자르넨(Sarnen)–기스빌(Giswil) / 룽게른(Lungern) / 브뤼니크 고개(Brünig Pass)에서 마이링엔(Meiringen)까지

예약: 좌석 예약이 필요 없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5. 고르너그라트 반(Gornergrat Bahn)
체르마트(Zermatt)–고르너그라트(Gornergrat)
유럽에서 가장 높은 지상 톱니바퀴 열차가 체르마트 기차역에서 고르너그라트 봉우리 정상까지 연중 운행된다. 기차는 1,469m 를 오르는데, 인상적인 다리를 건너고, 갱도와 터널을 통과하고, 잣 소나무와 황금빛 낙엽송으로 물든 숲을 관통하고, 바위 가득한 협곡과 반짝이는 산장 호수를 지난다. 33 분 만에, 마터호른이 시야에 들어오는데, 크리스털처럼 맑은 가을 공기 속에서 더 찬란하게 빛난다.

가을 최고의 포토 포인트: 어느 구간 하나 놓칠 곳이 없다.

예약: 좌석 예약이 필요 없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50% 할인된다.

6. 래티쉬 철도(Rätische Bahn)
쿠어(Chur)–티라노(Tirano)
코발트 빛 하늘, 황금빛 낙엽송, 반짝이는 호수, 눈 덮인 봉우리. 이게 바로, 그라우뷘덴(Graubünden)이 가을의 면모를 뽐내는 방식이다. 안개 같은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래티쉬 기차에 오르는 여행보다 더 들뜨는 일이

있을까? 무엇보다 래티쉬 철도가 운행하는 알불라(Albula)/베르니나(Bernina) 구간은 2008 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명소다. 일반 기차나 베르니나 특급(Bernina Express) 모두, 대단한 뷰를 선사한다.

가을 최고의 포토 포인트: 실스 임 돔레쉬그(Sils im Domleschg)–필리수르(Filisur) / 베르귄(Bergün)–프레다(Preda) / 알프 그륌(Alp Grüm)–포스키아보(Poschiavo)

예약: 베르니나 특급의 경우에 한해 좌석 예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7. 벵에른알프(Wengernalp) 철도
라우터브룬넨(Lauterbrunnen)–클라이네 샤이덱(Kleine Scheidegg)
가을은 라우터브룬넨 계곡이 특히 신비로운 면모를 선보이는 때다. 작은 개울과 가파른 폭포를 굽이치며 엷은 안개를 뚫고 지난다.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리벤델(Rivendell)은 톨킨(J. R. R. Tolkien)이 라우터브룬넨 계곡에 매료되어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라우터브룬넨에서 벵에른알프반 기차를 타면 벵엔(Wengen)과 그린델발트(Grindelwald)를 거쳐 클라이네 샤이덱까지 오를 수 있다. 총 19km 가 넘는 구간으로, 세상에서 가장 긴 연속 톱니바퀴 철로다.

가을 최고의 포토 포인트: 구간 내내 포토 포인트가 연이어 등장한다.

예약: 좌석 예약이 필요 없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25% 할인된다.

8. 브리엔츠 로트호른(Brienz Rothorn) 철도
브리엔츠(Brienz)–브리엔처 로트호른(Brienzer Rothorn)

1891 년 이래 이 증기 기관차는 전 세계 산을 좋아하는 이들을 브리엔처 로트호른으로 안내해 왔다. 철로가 처음 놓였을 때부터 사용되던 거의 오리지널 기관차를 이용해서다. 증기로 운행하는 톱니바퀴 기차는 1931 년 이래로는 이 종류에 있어서 유일한 존재다. 증기 기관차 여행은 가을에 더욱 낭만적인데, 거침없이 펼쳐지는 파노라마 덕분이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 시, 기차 운행에 이용되는 증기로 소시지를 요리한다. 소시지가 다 익으면 기차가 정차하는데, 탑승객 모두가 하나씩 맛볼 수 있다.

가을 최고의 포토 포인트: 구간 내내 카메라를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예약: 좌석 예약이 필요 없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50% 할인된다.

9. 보랄펜 익스프레스(Voralpen Express)
루체른(Luzern)-생갈렌(St. Gallen)
보랄펜 익스프레스는 중앙 스위스와 동부 스위스 사이를 여행하는 가장 매력적인 방법이다. 루체른과 루체른 호수의 그림 같은 풍경을 뒤로하고 기차는 라퍼스빌(Rapperswil)을 향한 뒤, 찬란한 로텐투름(Rothenthurm) 고산 습지를 건넌다. 화려한 가을빛을 발하는 토겐부르크(Toggenburg)를 지나고, 스위스에서 가장 높은 철교, 지터 비아둑트(Sitter Viaduct: 99m)를 건너 동부 스위스의 우아한 도시, 생갈렌(St. Gallen)에 도착한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수도원 도서관이 자리한 곳이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가을 최고의 포토 포인트: 로텐투름(Rothenthurm)–비버브루크(Biberbrugg) / 바트빌(Wattwil)–헤리사우(Herisau)

예약: 좌석 예약이 필요 없다.
스위스 트래블 패스: 전 구간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